



**아트마켓이 뜬다**  
**3** 이제는 미술 투자 시대

# 컬렉터와 시장이 스타작가 만든다



현수정 뉴욕 통신원

영리한 미술시장 전망있는 작가 알아보고 투자

미술계 동력은 작가 창작 에너지와 열정적 후원

2007년 초여름 휘트니 미술관에서 '가짜이 모든 것- 미술시장의 관점에서'라는 제목의 전시가 있었다. 이 전시의 서문에는 미학적인 가치와 시장의 가치는 동일한 것이 아니라는 전제 아래 다음과 같은 글이 실렸다. "가장 좋은 작품이 가장 비싸다. 왜냐하면 시장은 매우 영리하기 때문이다." 즉, 비싼 작품은 경제적 관점만이 아니라 미학적, 미술사적 가치를 담보한 것으로 미술 시장의 평가가 미술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언급에 대해 여러 이견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미술품 가격의 공개는 작품 가치를 평가하는 객관적 근거의 한 축이 되어가고 있다.

생존 작가인 이우환은 최근 10년 사이에 작품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작가이다. 2007년 베니스 비엔날레 전시 이후, 2008년 뉴욕 첼시의 지명도 있는 페이스 윌렌스틴 갤러리에서 전시를 열었고 최근 로스앤젤레스의 브롬 앤 포우 갤러리에서 대규모 전시가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지금 그는 또 하나의 중요한 전시를 뉴욕 구겐하임미술관에서 준비중이다. 백남준을 잇는 최고의 한국출신 작가로 그의 명성은 상승가도를 타고 있다. 이러한 그의 입지를 보여주

듯 2007년 뉴욕 소더비 경매에서 '점으로부터'(1974년 작)가 2억에 낙찰되는 기록을 세웠다. 이우환의 경우 미술시장은 전망 있는 작가를 일찌감치 알아보고 투자할 정도로 매우 영리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지난 한 해 미술시장을 정리하는 여러 지표들이 나오고 있다. 세계 경제는 물론 국내 경기의 악화로 국내 미술경매 낙찰액도 2008년에 비해 41%(총 낙찰액 701억8천6만원)이고, 2007년과 비교하면 약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고 한다. 이러한 지표는 경제적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미술시장이 위축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좀 더 마음을 열고 미술계를 주시하면 이러한 숫자에 아랑곳하지 않는 더 적극적인 움직임이 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 휴스턴 미술관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미술관에서는 '우리의 밝은 미래'라는 주제로 최정화, 양혜규, 구정아, 서도호 같은 한국 젊은 작가들의 작품이 전시되고 있다. 또 뉴욕의 첼시 브리스 윌고우치갤러리(Bryce Wilkowitz)에서 열리고 있는 '아시아 미술의 미래 속으로(Into the future of Asian Art)' 전시에는 한국의 젊은 작가 노상균과 박준범이 참여하고 있다. 소호의 오펀

역사를 가진 오케이 헬리스 갤러리(Okay Harris Gallery)에서는 2004년 광주 비엔날레에 초대되었던 조숙진 개인전이 열리고 있다. 작가들만이 아니라 국내화랑 관계자들도 불이던 시되지는 뉴욕 아트 페어를 위해 아직 스산한 첼시와 뉴욕의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국내에서만 개최되었던 KIFA(한국세계아트페어)가 오는 3월 뉴욕에서 '자리'를 펼치는 등 화랑가나 컬렉터들의 눈을 한국미술로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시장의 논리가 미술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도 결국 미술계를 살아 있게 하는 중요한 힘은 지지 않는 작가들의 창작 에너지와 이들을 지지하는 열정적인 후원세력이다. 육선의 매출가격 하락은 투기 심리로 작품을 샀던 사람들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겠지만 건전한 미술시장의 질서를 만들어가는 데는 긍정적일 수 있을 때이다.

그런 작품의 질과 작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컬렉터들이 미술시장으로 모여들고 있다. 이러한 미술 시장의 변화로 나타나는 특징을 보면 작품을 사고자 하는 구매자 층이 점차 젊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구매자 층은 미술사에서 이미

평가된 지명도 있는 작가의 고가 작품이 아니라 신진 작가의 작품을 구매하는 그룹이다. 장르 역시 평면 회화에서 사진, 조각, 비디오 같은 다양한 매체로 관심을 넓히고 있다. 이들을 겨냥해 갤러리나 옥션도 200만~300만 원 대의 부담 없는 저가 작품들을 소개하는 등 구입여건을 완화해나가고 있다.

또 하나 미술 시장의 변화에서 주목되는 것은 국내와 해외의 경계가 희미해지면서 해외시장의 진출과 이에 대한 전략이 더 적극화되고 있는 점이다. 작가에 따라 해외 시장에서 활동 영역을 넓힌 후 국내로 연결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2009년 비엔날레 한국관과 국가관에 초대되었던 양혜규라는 젊은 여성 작가의 경우 국외에서 더 많이 활동하다 베니스 비엔날레를 계기로 국내에 알려진 케이스다.

이제 작가는 물론이고 국내 화랑도 경계를 넘나들면서 활동범위를 넓혀야 한다. 미술 시장의 하락을 근심하기보다 작가는 더 좋은 작품으로 경쟁력을 만들어야 되고 미술 시장을 이끌어가는 갤러리들도 더 열심히 해외무대로 국내 작가를 소개하는 전략을 찾아야 한다. 세계 미술 경매시장에서의 국가별 작품 판매 통계를 보면 유럽 연합이 44%, 미국이 45%, 중국이 5%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은 지표에도 없을 뿐더러 기타 2.7%의 일부분에 속하고 있다. 최근 크리스티 경매가 홍콩으로 옮겨오면서 아시아 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전체적인 미술계에 한국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아직 미흡하다. 얼마 전 홍콩에 근거를 두고 있는 '아시아미술 아카이브 (Asia Art

최근 일부 유명 화랑들이 국내작가들을 국제 무대에 알리기 위해 뉴욕 미드타운<오른쪽>과 첼시 갤러리들과의 네트워킹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작가들의 입지가 넓어지면서 젊은 작가들의 뉴욕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다. 뉴욕 소호의 오케이 헬리스갤러리에 출품된 조숙진의 작품<왼쪽>.

Archive)'의 감독을 만날 자리가 있었다. 웹사이트를 검색해보니 아시아미술의 아카이브인데 단 한명의 한국작가에 대한 자료가 없었다고 한다. 이와 관련된 현재 유럽, 미국 등 서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 작가의 수와 미술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 수를 감안한다면 한국 작가에 대한 해외 지명도는 상대적으로 빈약한 실정이다. 광주비엔날레를 통해 외국작가들이 국내로 소개되는 것만큼 국내 작가들도 해외로 알려 이들이 국제무대에서 경쟁력 있는 작가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과 실질적 역할들이 필요한 시점이다.

광주에서는 아시아문화전당 건립을 위한 삽질이 한창이다. 이 삽질이 마무리되면 머지 않아 아시아 미술의 아카이브를 구축하게 될 것이다. 이곳은 아시아 작가들의 자료를 광주로 모으는 것만이 아니라 광주의 작가들을 해외로 내보내는 네트워크적인 역할도 담당해야 한다. '우리의 밝은 미래'라는 전시 주제처럼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하는 작가들과 관계자들의 행진이 멈추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

현수정 통신원은

- ▲조선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미술사 전공.
- ▲개인전 : 뉴욕·서울·광주 총 7회.
- ▲제 7회 광주비엔날레 미술 오케스트라 '시간이 지라는 땅'·'미술로 말하는 희망' 전 기획.
- ▲현재 뉴욕에서 독립 큐레이터 및 작가로 활동.